방재시스템 종단인증업체 5개 추가

총무원, 24일 종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기존의 2개 업체 포함 총 7개 업체 돌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종단 인증업체가 추가 지정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종단 인증업체를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증업체 공모에는 모두 4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단계별 심사를 거쳐 누리텔레콤, 뮤텍스랩, 토탁스, 시그마정치, 넥스코시스템 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보탬 신과 파수텍 등 기존 2개 업체를 포함해 7개 업체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종단인증업체로 지정됐다.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종단에서 진행하는 '전통문화 수호와 보존 결사' 의 일환으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개해온 총무원은 종단 인증업체 선정을 위해 업체공모를 실시하고, 인증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계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주무부서인 총무원 문화부가 지난 5월 방재인증업체 공모를 공고하고, 6월10일부터 9월에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문화재위원과부서 시행지침 과 종단에서 정한 방재시스템 사업 지침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 24일 종무회의에서 인증업체를 최종 결정했다.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면 전통사찰 이나 목조건축물의 화재 및 각종 재난 등 묘한 상보의 절도의 훼손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나 신속한 준비를 가능하다. 한편 전기화재시 주원인 가운데 하나인 아크 현상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전기위험 요인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전통사찰에서는 종단에서 인증한 업체 가운데 선정돼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종단 총무원부터 한 관계자는 "연간 100여개 이상의 전통사찰에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서 "기존 업체 외에 추가적으로 5개 업체를 종단에서 인증해 사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총무원의 종단 인증업체 지정은 지난 20일 열린 종단 인증업체 선정의 경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수 기자 ecosee@buhg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4일 남바빈 영효라이트 전 왕궁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양국 교류 등에 대해 환담했다.

"한-몽 불교 교류협력 지속되길"

영효라이트 전 몽골대통령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한광욱 국민통합위원장
갈등해소 종단 협조 요청

한광욱 국민통합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자승스님은 지난 24일 3006년도 대한민국 포교부문 수상자이기도 한 남바빈 영효라이트 전 몽골대통령과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바른 일정에도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한국불교와 몽골불교는 연등의 초파 등 문화교류를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총무 시절부터 복지재단, 아쉬다운동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영효바이트 전 몽골 대통령은 "몽골 불교권 대다수가 옛 언어로 쓰여 있어 몽골인이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한국에 있는 포교를 위해 직접 (금강경)을 한 대 몽골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경에 담겨 있는 한국 스님들의 지혜를 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원가 된다면 총무원장 스님 등 한국 스님들을 몽골로 초청해 법문을 듣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어 한광욱 국민대통합 위원장도 전 조계종장 법등스님과 함께 총무원장 스님의 국민통합 축하하며 "국민갈등을 풀어나는 데 조계종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찰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이 벌어져 국민통합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밝힌 4가지 기도는 계층 간 갈등이 불필요한 가능성이, 갈등이 해소돼야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도 부흥하고 문화가 융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종교와 사회 모두가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조계종도 사회갈등 현장에 뛰어들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esmile@buhgo.com

혜안스님 탄월스님 법원스님 성운스님 탄탄스님 효신스님 장월스님 명본스님

34대 총무원 집행부 첫 인사 단행

총무·기획국장 유임
사회국장 혜안스님
호법국장 탄월스님
조사국장 법원스님

오는 31일 제34대 조계종 총무원 출범을 앞두고 첫 국장단 인사가 단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호법부장 사찰위, 직할교구사무처 국장에게 인명보좌를 전달하고 "성무보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국장 광전스님, 기획국장 남전스님, 사서국장 효순스님이 유임된 가운데 사회국장에 혜안스님이 임명됐다. 또 호법국장에 탄월스님, 조사국장에 법원스님, 상임감찰에 성공·탄탄스님, 호법과장에 효신스님, 조사과장에 장월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특히 호법부 소임을 맡은 스님들에게 "종단의 중심부 부서인 만큼 정기를 잘 지켜줘야" 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에는 명본스님이 새로 임명됐다.

기획실 감사국장과 재무국장, 문화국장 인선는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혜안스님은 봉안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혜안스 승가대학과 불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명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호법부 상임감찰과 조사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자재관 주지다.

탄월스님은 자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범어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원사 주지를 역임하고 조계종 중앙종무원 사사무처장을 취득했다. 도상장선원, 광륜종파선원, 백담사 안거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으며 이력사, 운지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선지사 주지다.

탄탄스님은 자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대원사 주지와 총무원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효신스님은 운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9년 직지사에서 능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졸업 후 지금은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현재 교정교육 전반인 지도법사 및 대구경북 전반인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월스님은 해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03년 직지사에서 능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9년 직지사에서 고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중앙승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명본스님은 경일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청하스님을 계사로 모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1988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월주사 호서선원, 고불총림선원 등에서 선 안거를 성실했으며,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 총무원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이현경 기자 esmile@buhgo.com

호다영 기자의 연장 에세이
hong0914@buhgo.com

유영억 위원장님 자진시퇴 하시조

지난 1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 대강당에서 유영억 위원장의 조동한 취임식이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것이 있는 데 여주 조동화 전했다.

유영억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인사였다. 여사장 께서는 물론이고 정교재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유영억 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를 개신교 사상과 접목시켜 합리화 하려 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여론 지시와 거기로 등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대통령" 으로 평가하면서 그의 기독교 정의 정책을 찬양했다.

특히 교학시 교과서가 인용한 대한민국 건국의 재건사이라는 책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나라와 반세로 복뿐한 결과 되드디어 나라의 축제를 받아낸 것과 이어가며 연상시키는 위업"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을 예찬했다. 국민적으로 분열됐 시기 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사료 수집과 편찬 보급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국사 교육과 보급을 주관 하고 역사 교과서를 관장하는 관위 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 예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장하는 기관의 위원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어야 하고 편파정신이 부합하는 역사관이라는 기대가 많다. 당 본 뿐 나라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로 만들자 주장드립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어야 한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국가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은 누가 보도 보적할한 일이다. 유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불기2557(2013)년 동안거 대중결제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통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7(2013)년 동안거 대중결제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계신고

- **신고기간** : 불기2557(2013)년 **11월 7일**(목, 음력 10.5 ~ **17일**(일, 음력 10.15)
-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로 관할하는 반드시 사찰의 소재 교구본사 (고)
-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 · 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 제출 서류를 지정의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택스, 이메일 방송의 방법으로 신고함

대상 소속	제출 서류	기입 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	사찰이 소재지 및 가장자리를 결계구역 구역으로 지정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	수행처 소재지	
등록된 종단승가위원 소임자 및 법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	학과 과정, 학년 정원, 기일	등록된 종단승가위
해외 거주 또는 출가한 비구니	해외 출국증명 신고서 (별첨서식)	출국 목적 및 수행처 구체적으로 기입	총무부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살기 거주 스세는 해 주기 리다 해외 출국증명서신고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입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때로 결계신고를 감음합니다.
-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해야 등록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할 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

- **포살정의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 · 사미니 포함은 율정장사의 법명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한인가 1회 이상, 참인가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그 교구본사 관할 밖에 있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등록대학과 및 종합승가대학과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사찰에서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장의 에 대하여**
  - 가. 승상 40년 이상 되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 나. 법계 기간 중 1명 이상 입법 중인 스님
  - 다. 이틀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라. 법계 기간 중 1명 이상 해외 공부 출장 중인 스님
  - 마. 고 복무중인 스님
  - ※ 포살장의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휴양)시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 나 ~ 마 라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를 포살 법회 일 전에 미리 참가하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별 정해 진행하고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합니다)
- **타 교구 포살장에**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할 수 있을 이유, 학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중결제 미두에 시비 불허

- 최초 동시 및 지적 하하에 필요한 대중결제를 등재하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사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지정을 적용한다. 2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주간 유예 등. (불기 2557(2013).2.2. 개정)
- 단, 등시 및 지적하여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호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 → 종무지로실 → 교무 → 대중결제의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참정부에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시행이 없을 시 결계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문의안내

- 결계 신고 및 포살일정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 정각원, 중앙승가대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3 Fax) 02-720-3302

불기2557(2013)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